

## 인체 후두 유두종과 후두 편평 세포암에서의 상피성장인자수용체발현에 관한 면역조직화학적 연구

서울의대 이비인후과

김광현 · 성명훈 · 장근호

면역조직화학 염색을 이용하여 인체의 정상 성문 상피조직, 후두 유두종 및 후두 편평상피암에서의 상피성장인자수용체의 발현을 알아보고자 수용체의 세포외 부분에 대한 단클론항체와 세포내 부분에 대한 단클론항체를 이용하여 면역반응성이 있는 수용체들의 분포와 그 염색정도를 관찰하였다.

상피성장인자수용체는 정상 성문 상피의 기저세포층 및 일부 극세포층에 존재하였으며 수용체의 부위별 분포의 변화가 뚜렷하였다. 후두 유두종에서는 정상 성문 상피에서와 유사한 양상의 수용체 발현 분포를 보였다.

편평상피암에서는 대부분의 종양세포들이 상피성장인자수용체의 강한 발현을 나타내었다.

이상의 연구결과는 후두 상피에서의 상피성장인자수용체의 과다한 발현이 단순한 세포증식의 결과가 아니라 악성화에 특이적인 소견임을 제시하고 있다.

## 두경부 영역에서의 선양낭포암 : 임상적 특징 및 치료성적

서울의대 이비인후과, 치료방사선과, \* 병리학교실\*\*

김광현 · 성명훈 · 정필상 · 이재서  
박찬일\* · 김우호\*\*

두경부영역에서 발생하는 선양낭포암은 비교적 드문 질환으로서 완만한 성장, 재발적 경향, 장기적

임상 경과, 만기적 재발 및 원격 전이 등을 그 특징으로 한다. 저자들은 1979년부터 1991년까지 조직학적으로 두경부의 선양낭포암이라고 진단받은 67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이 종양의 전형적인 임상경과, 치료에 대한 반응 및 장기적 치료성적 등을 알아보았다. 이들의 추적기간은 4개월에서 118개월(평균 49.5개월)이었으며 67명의 환자중 남녀는 각각 34, 33명이었으며, 진단 당시 연령은 20세에서 72세까지 였으며 평균은 43세였다. 원발부위로는, 주타액선에서는 이하선이, 부타액선에서는 비강 및 부비동이 가장 많았다. 국소 무병기간은 5년 및 10년동안 각각 71.1%, 44.3%였고, 저자들의 연구에서 수술후 방사선 치료를 병행하는 것이 국소치료를 높였다. 원격전이는 40%에서 있었으며 대부분 폐전이였으며 8년이 지난 후에도 plateau 없이 계속 상승하는 curve를 보였다. 생존율은 19.2%였다.

## 경부 광청술의 임상적 고찰

원자력병원 이비인후과

심윤상 · 오경균 · 이용식 · 박혁동\*

저자들은 1989년 1월부터 1990년 12월까지 두경부 악성 종양으로 경부 광청술을 받은 142명(161측)의 임상상 및 치료 효과를 분석하였다.

1) 임상적 임파절 병기의 병리 조직학적 진단에 대한 정확도는 83.1%였고 세침 흡인검사의 정확도는 69.7%였다.

2) 경부 재발은 25명(17.6%), 29측(18.0%)에서 발견 되었고 동측 19명, 반대측 2명, 양측 4명의 재발이었다.

3) 치료적 광청술을 받은 21.6%, 예방적 광청술을 받은 10.0%에서 경부 재발을 보였다.

4) 원발두위별 재발율은 구순 및 구강, 하인두, 후두 등의 순서로 높게 나타났다.

5) 재발율은 술후 방사선 치료를 받은 군에서보다 받지 않은 군에서 높았다. 이상의 결과에서 경부 전이율이 높은 부위의 종양일수록 원발 부위 치료와 함께 치료적 또는 예방적경부 광청술을 하고 술후